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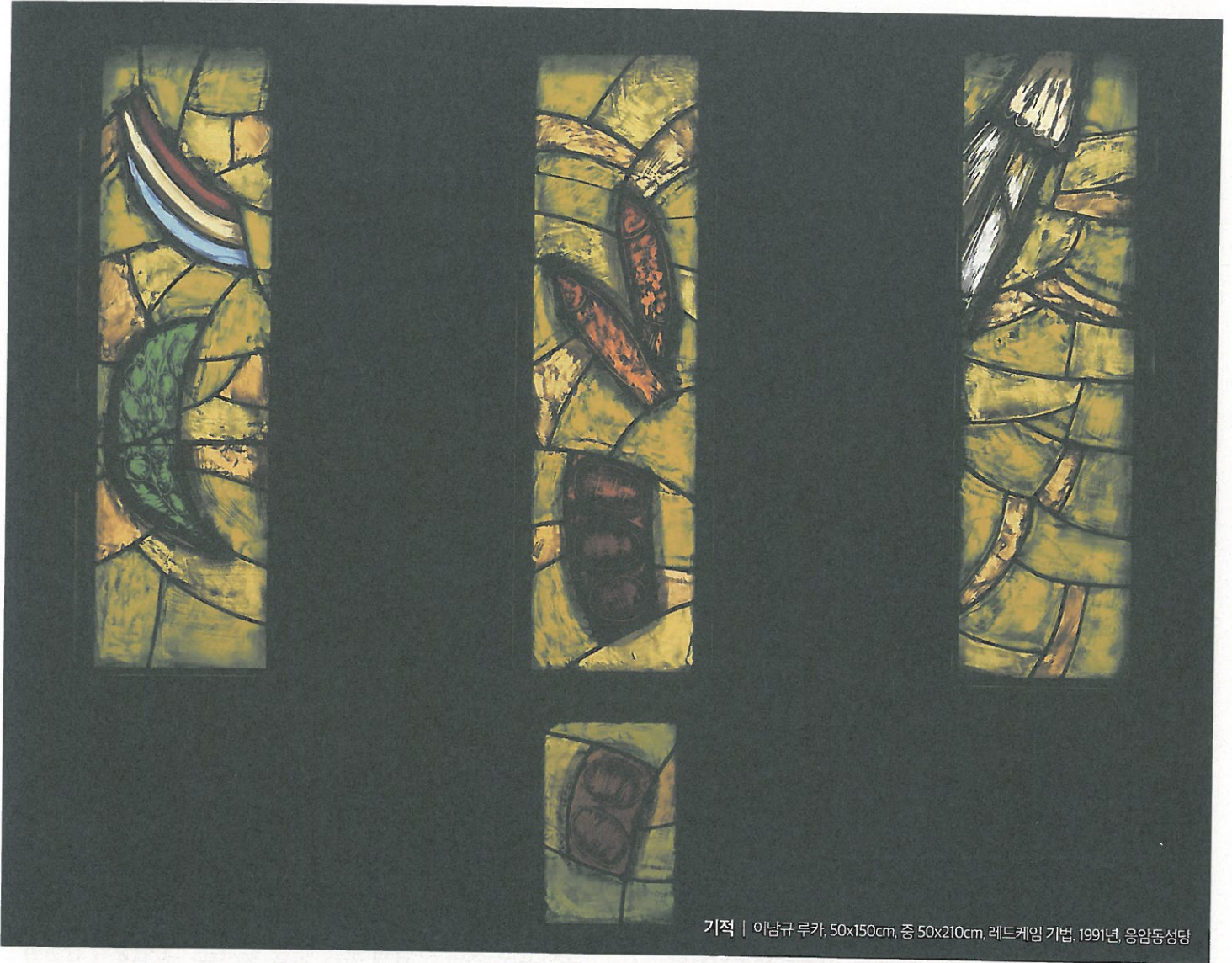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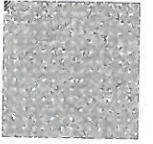
# 시온 주보

제2462호 2023년 8월 20일(가해)

연중 제20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본원을 바코드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기적 | 이남규 루카, 50x150cm, 중 50x210cm, 레드케임 기법, 1991년, 음양동성당

## 입당송 | 시편 84(83),10-11 참조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 제1독서 | 이사 56,1,6-7

##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  
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  
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 제2독서 | 로마 11,13-15,29-32

## 복음환송 | 마태 4,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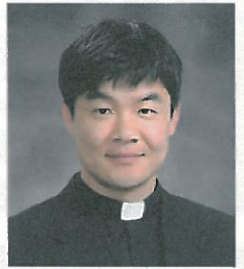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복음 | 마태 15,21-28

## 영성체송 |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허석훈 루카 신부 | 한강성당 주임

## 간절함이 키우는 신앙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을 겪게 마련입니다. 흔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으로 겪는 고통,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불화로 겪는 심리적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찾아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절망으로 자포자기의 삶을 살기도 하고, 세상을 탓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며,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복음을 듣자니,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딸의 병이 고통의 시작이었지만, 그 아픈 딸을 돌보느라 이웃과 관계가 무너졌을 것이고, 가정불화도 자초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든데도 애꿎은 모정은 고통에 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보았을 것임을 쉽게 추측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인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만도 하건만, '다윗의 자손이시여!'라는 외침에 이미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신의 고백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도 차갑습니다.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 느낌은 마치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 하느님의 침묵처럼 말입니다.

그 차가운 반응에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건만, 제자들의 냉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쳐댁니다. 예수님의 첫 반응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기죽지 않고 매달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야속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매달립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부인의 대화는 마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반복해야 함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듯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긴 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겸손하게 청합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걸었던 40년의 세월만큼, 그 청을 드리는 시간이 길어도 상관없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봐도 기도의 마음이 너무 얇아 보입니다. 조급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하고, 효과 없음에 빨리 지치고, 선부른 판단을 하기 일쑤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신앙의 간절함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마태 15,28)

주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힘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련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저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제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테인드글라스에 밝은색과 천진한 형태로 표현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저 자신은 물론 주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마카엘 | 루크글라스

## ‘빛’을 따르기 위하여

어느 날 선배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가톨릭 신자 가운데 방송이나 광고, 영화 등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시그니스(SIGNIS, 신호를 뜻하는 Sign과 불, 빛을 뜻하는 라틴어 Ignis의 합성)이라고 있는데, 자신이 회장을 맡게 되었다며 저에게 사무국장으로 봉사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한 마디로 금시초문, 당연히 저는 선배에게 제가 맡을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이 일천할 뿐 아니라 아직 회사에서도 중전에 불과하니 업무량 겹치면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선배의 부탁은 완강했고 또한 간절했습니다.

‘봉사한다는 게 몸도 마음도 여유롭고 모든 게 완비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봉사가 곧 주님의 은총이며, 하느님께서 언제나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을 골라 일을 시키시면서 그 신앙심을 넓고 깊게 만들어 주신다.’ 등이 그 선배가 저를 설득하며 둘러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동안 일천한 사무국장, 철없는 사무국장이 되어 미디어에 종사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CJPA)와 함께하는 합동 피정이나 성지순례와 같은 행사를 준비할 때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으며, 시그니스 세계 총회의 한국 개최를 제안하겠다는 캐나다 퀘벡 총회에 가야 한다는 안건을 논의할 때는 그야말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르면 용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제 간은 정말 콩알만 해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선배가 회장으로서 이끌어가고, 각 사 교우 회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전임 회장들과 사무국장들이 힘을 보태게 하시니 저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서강대학교 일원에서 시그니스 세



김재홍 사도요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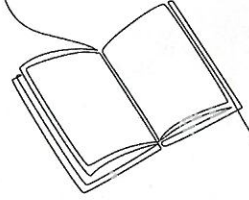
계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선배가 말했습니다. 독서를 통한 복음화를 위해 가톨릭 언론인들이 만든 가톨릭독서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거기 회장이 되게 생겼으니, 사무국장으로 봉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털털하고 격의 없는 그 선배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며 농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일일이 열거했습니다만... 그로부터 2년 동안 사무국장으로서는 운영위원들과 소통하는 한편 ‘가톨릭독서콘서트’를 개최하는 각 본당 사무장들과 연락을 취해야 하는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벼락처럼 마주치게 된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가톨릭독서아카데미도 ‘거리 두기’의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시 ‘빛’을 주셨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오며 많은 이들이 지쳤지만, 가톨릭독서아카데미는 새로운 회장과 사무국장이 등장해 힘차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무기력하고 못난 자로 살겠지만, ‘빛’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힘차게 맡으려 합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 선교 (17,16-34)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이번 선교지는 아테네와 코린토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정치·문화·철학의 중심 도시였고, 코린토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두 도시의 공통점은 강하게 뿌리내린 그리스 문화에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선교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고난의 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신교적이며, 비윤리적 삶을 사는 이방인 문화가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바오로는 다신교적 신관 문화를 역으로 이용해 이를 칭찬하며 난관을 극복합니다.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 아고라 광장, 하드리아누스의 도서관 등 고대 신전과 건축물들을 보유한 그리스의 중심 도시입니다. 바오로가 설교한 아레오파고스 광장은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오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교합니다. 먼저 바오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고서, 아테네인들의 종교심을 칭찬합니다. (17,23) 이를 토대로 아테네인들에게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자 하늘과 땅의 주인 (17,24)이신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밝힙니다. 바오로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이 중심이 아니라, 아테네인들의 종교적 심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유일하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점 요소입니다. 일방적인 복음 선포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용하는 접근이며, 여기에서 바

오로의 재치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바오로의 말을 흘려들었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됩니다. 복음 선포는 대중들의 커다란 지지와 성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뜻 있는 이들의 변화를 통해 실현됩니다.

나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산 이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신앙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건 더욱 힘든 일입니다. 아테네 시민은 신화와 철학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떠벌리거나 교만한 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에게 참으로 힘든 선교 활동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바오로가 아테네에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지 못했기에 실패한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의 성공 여부를 대중적으로, 커다란 결실로만 판단한다면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밀알 하나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아테네에서 작은 성과를 거두고, 코린토로 길을 나섭니다.

# 복음 말씀을 회상하고 공동체를 일치로 이끄는 '영성체송' (Communio)



연중 제20주일(가해) 영성체송, Domus mea(도무스 메아)  
[Graduale Triplex(그라두알레 트리플렉스) 402]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 · 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감독

‘영성체송’은 ‘영성체 행렬을 동반하는 안티폰’입니다. 이미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년) 시대에 영성체하는 신자들의 행렬 때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시편 34(33),9] 그리고 “모든 눈이 당신께 바라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십니다.”[시편 145(144),15] 등의 시편 구절을 후렴으로 불렀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제86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영성체 노래를 시작한다. 한목소리로 부르는 이 노래는 영성체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 특성을 더욱더 밝혀 준다. 이 노래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는 동안 계속하여 부른다.”

영성체 노래, 즉 ‘영성체송’은 “영성체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 특성을 밝혀 주는” 특성에 따라서 라

틴어로 ‘Communio’(일치, 친교)라고 합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의 일치와 친교뿐 아니라, 하느님과 내적 통교와 합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영성체송은 특히 그날 미사의 복음 말씀을 다시금 회상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이끌어 줍니다.

영성체 노래 선곡과 방식에 대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제87항은 다음과 같이 이어 나갑니다. “영성체 노래는 《로마 미사 성가집》(Graduale Romanum)이나 《단순 미사 성가집》(Graduale Simplex)에 실린 영성체송을 시편과 함께 부를 수도 있고, 영성체송만 부를 수도 있다. 또는 주교회의가 승인한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노래는 성가대만 부르든지 성가대나 선창자가 교우들과 함께 부른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로마 미사 경본》에 실린 영성체송을 신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사제가 성체를 모신 다음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기 전에 직접 낭송한다.” 《로마 미사 성가집》(Graduale

Romanum)에 실린 연중 제20주일(가해) 영성체송(Co.Domus mea)은 마태오복음 21장 13절과 7장 8절을 이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나안 부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오늘 복음 말씀(마태 15,21-28)을 다시금 회상시킵니다.

“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마태 21, 13)

거기에서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마태 7, 8)

”



청소년국 중고등부  
홈페이지 큐알(QR)



# "하느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1코린 7,24)



박재득 테오도로 신부 | 청소년국 중고등부 담당

송, 레크리에이션 댄스 등을 통해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예전부터 '청소년은 교회의 미래'라고 하면서 청소년 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엔데믹이 된 지금은 청소년 사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사목은 시대적으로 특별히 더 민감해야 하고, 기존의 방식에서 늘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형성(포르마시오, formatio)'되어 나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가톨릭적(Being Catholic)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더욱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성장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부 소식을 청소년 주보 '하늘마음' 뿐만 아니라 서울주보를 통해서도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 담당 박재득 테오도로 신부입니다. 중고등부는 1979년 창립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톨릭 청소년들의 영성 생활과 활동에 동반하는 청소년 동반자(주일학교 교사)를 위해 행정 제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정기 교육과 청소년과의 상호 유대 강화, 기타 필요한 행사 주관 등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동반자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도를 양성함으로써 청소년 및 사회 복음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중고등부에는 2개의 연합회 단체와 청소년 사목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교사연합회와 CYA연합회는 본당과 지구 단위를 넘어 교구에서 운영하며 교육 및 행정 제반

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안식년을 보내고 있지만, 내년부터 다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사목 부서는 본당에서 활동을 마친 청소년 동반자들이 교구에 와서 활동하는 3개의 부서(교육부, 미디어부, 찬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안 연구 및 작성, 강의를 통해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의 신앙적 양성 교육과정인 청소년 동반자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교리 교육을 통한 청소년 복음화에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미디어부는 청소년 주보 '하늘마음'과 웹진 '로켓(Love Catholic Youth)'을 발행하고, 연수 및 행사 취재를 통해 정보 전달 및 선교에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찬미부는 찬양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연수 및 행사에서 성가, 반주, 액션



청소년국 중고등부 주보  
'하늘마음' 카톡으로 만나요!

왼쪽 큐알(QR) 코드 스캔으로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면  
청소년을 위한 소식이 가득한 중고등부 주보  
'하늘마음'을 매주 카톡으로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소식이 가득한  
로켓 인스타그램을 소개합니다!

한 달간의 본당 중고등부 소식이 담긴 #지금우리주일학교는, 그리고 각종 중고등부 연수 소식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로켓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소식도 받아보세요!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 전대사가 뭐죠?

전대사(全大赦)는 대사의 한 종류입니다. 용서, 관대함 등을 뜻하는 원래 라틴어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말 그대로 ‘크게 용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예전에 이런 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 잘못을 하고 온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던 날 밤, 종아리를 맞았던 그 글쓴이는 아픔으로 아직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늦은 밤,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어머님께서 아이가 이제 잠들었을 거라 생각하신 모양인지 조용히 들어오시더라고요. 잠자는 척하고 있었으나, 어머니께서 푹푹 눌러 담은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회초리 자국이 선명한 종아리에 약을 정성껏 바르시는 손길을 글쓴이는 충격적으로 느껴야 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글이었습니다.

훈육의 개념이 많이 달라진 요즘이지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요? 아이의 잘못을 마음에 새기고 칼을 가는(1) 부모는 아무도 없겠지만, 아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길 바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일 테죠. 죄는 기꺼이 용서하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는 잠깐의 벌. 우리 교회는 그것을 잠벌(暫罰)이라고 부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 자체는 용서받더라도 잠벌은 남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는 마음으로 ‘보속’을 정성껏 하며,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벌과 관련하여 교회 역사 안에서 ‘대사’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죄짓지 않길 독려하는 차원에서 죄지은 교우에게 매우 엄격하게 대응했습니다. 회초리를 세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죄지은 형제를 잠시 공동체에서 추

방하고 교회의 공식 예절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 기간 중 다른 교우들은 그 형제를 위해 기도와 고행, 선행으로 그 형제가 용서받길 하느님께 청하며, 죄지은 형제의 보속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보속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들을 위해 교우들이 대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타인의 잠벌이 지나가길 청하며 기도해 주는 전통이 있었으니, 이것이 ‘대사’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벌을 위해 대신 희생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나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상의 수많은 성인들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 공로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대사’를 통해 교우들이 잠벌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초대교회의 전통과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대사’의 은총을 양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잠벌의 일부가 경감되는 ‘부분 대사(한대사)’에 반해, 잠벌 전체를 용서받는 대사를 일컬어 ‘전면 대사(전대사)’라고 합니다. 단, 잠벌의 효과가 무의미하게 희석되지 않도록,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도와 선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전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파문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② 대죄 중에 있어서는 안 되며 ③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 고해성사와 (2) 영성체를 하고 (3)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매일미사에 수록된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쳐도 되며, 그 외 다른 기도를 해도 됩니다.)를 바쳐야 하며, 그 외 그때그때 전대사의 은총이 선포될 때 제시되는 선행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8년 8월 25일 이복영 요셉 신부(53세)
- 2006년 8월 23일 박귀훈 사도 요한 신부(90세)
- 2020년 8월 22일 최익철 베네딕도 신부(98세)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옥덕 성화전: 1전시실  
허영 개인전: 2전시실  
남주연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8월23일(수)~31일(목)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9월1일부터 매주(금)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때: 12월24일(일)~25일(월)  
품목: 수공예 성물, 공예품, 성탄 관련 물품 등  
9월17일까지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접수  
작품 이미지와 설명, 가격대, 작가 소개 포함  
발표: 9월말 개별 통보 /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제46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일반 신자, 수도자, 성직자, 관심자 누구나  
내용: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 곳: 8월23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강사: 강석중(명예교수, 경성국립대 해양생명과학과)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 회비 없음

**제9회 인권 생명 평화기행 안내**

대상: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신자(40명) / 내용: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의 길 찾기' 강연회, 한반도 평화 미사(유경준 주교주례, DMZ 평화기행(회비 없음))  
때: 9월9일(토)~10일(일) 1박 2일  
곳: 참회와 속죄의 성당, 파주 DMZ  
문의(신청): 02)727-2431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민족화해위원회**

-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81차 미사 8월2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청계동 본당, 장연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8월25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3년 하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8월7일(월)~30일(수)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 1) 명동 오전 정기간좌(정기간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9월4일~12월11일 매주(일), 명동교구청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9월4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지급): 정기간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 2) 청년(쿠카복음), 직장인(정기간좌 4권) 성서못자리  
때: 9월6일~12월13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9월6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간좌(4권-동부 화요반 · 서부 목요반 / 2권-동부 화요반)  
수강기간: 9월5일~12월14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9월4일~12월31일 / 회비: 10만원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가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8월1일(화)~23일(수) / 3개월 수업(9월~11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가을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양상반	그레고리오성가(남·여) · 성악(남·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돌봄 노동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활동지원사) 마음 돌봄 피정**

때: 9월9일(토) 11시~10일(일) 13시30분(1박 2일)  
곳: 우이동 명상의 집 / 회비: 3만원  
인원: 20명 / 8월30일(수)까지 마감  
문의(접수): 02)924-2721, 2 노동사목위원회

**청년들과 함께하는 하루나 성시간**

마드리드 교구에서 시작, 전세계로 확장 중인 청년신심 운동 하루나(Hakuna Movement)전례에 초대합니다  
하루나 성시간: 8월24일(목) 19시30분, 이문동성당  
하루나 미사 & 성시간: 8월25일(금) 19시30분,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내 콘솔레이션홀  
문의: 02)777-8249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4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때: 9월1일~10월11일 매주(수) 10시~13시, 14시~17시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법: 온라인 교육 / 심화 교육(교정사목센터)  
마감: 8월25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 02)921-5093, 010-3732-5093

**주교좌 명동대성당 하반기 견진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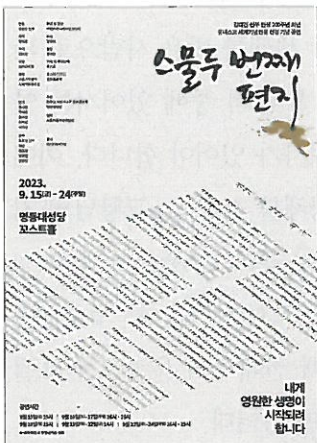
신청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난 신자부터 신청 가능)  
신청기간: 8월20일(일)~9월10일(일)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자세한 일정과 준비서류는 명동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교육일정: 9월17일~10월22일 매주(일) 13시30분~15시30분(5주간 / 대면수업)  
견진성사: 10월29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 02)774-1784 성당사무실

**시복시성 기원미사 및 9월애 동행 도보순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1) 순교자현양위원회 시복시성 기원미사  
때: 8월22일(화) 오전 10시(189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해설사와 함께하는 '9월애 동행' 도보순례 안내

8월20일(화)	9월2일(토) 오전 9시 출발	1코스 팔섬의 길
9월5일(화)	9월9일(토) 오전 9시 출발	2코스 생명의 길
9월12일(화)	9월16일(토) 오전 8시30분 출발	3코스 일치의 길

신청: 8월21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회비: 1인 7천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화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 공연

**스물두 번째 편지**

2023. 9.15.(금) - 9.24.(주일),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공연시간	9월 15일(금) 19시	9월 16일(토) - 17일(주일) 16시 · 19시
	9월 18일(월) 19시	9월 19일(화) - 22일(금) 14시   9월 23일(토) - 24일(주일) 16시 · 19시

김대건 신부님은 간절히 바라고 믿었던 하느님 나라를 위해 고난과 역경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있던 분입니다. 신부님의 편지를 따라 견노라면 굳건한 신앙과 뜨거운 사랑으로 펄펄 살아 뛰었던 스물다섯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예약 확인 후 당일 선착순 입장)

입장료: 1만원 | 문의: 02)3789-7702 | \* 유료 공연이오니 사전 예약자분들은 공연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티켓 수령 부탁드립니다.







**성물·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예수회센터 강의·피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1) **가톨릭 지성과 영성의 현장 예수회센터 강좌**  
 영성, 성서, 심리, 문화, 생태 강좌 개설  
 첫 강의 1교시는 온라인 무료 수강 가능  
 검색창에서 예수회센터 홈페이지(center.jesuit.com)로 들어오세요  
 2) **레지오·성가대·제 단체 일일위탁 피정**  
 때: 10시~15시30분(미사로 맞춤) / 지도: 예수회 사제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제10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10월12일까지 접수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연합회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우리소리합창단 단원 모집**  
 국악성가를 중심으로 함께 봉사할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10-8615-0402 단장  
 연습: 매주(월) 19시, 전철 1호선 종로3가역 9번 출구

**미사**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8월29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흥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8월25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논현동)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8월28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8월25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9월에는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8월27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안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가톨릭여성연합회 8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고준석 신부(해화동성당 주임)  
 때, 곳: 8월22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 중공: 2024년 하반기(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30년(추가 30년 가능) /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일 기념행사**  
 곳: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새남터 성지  
 10인 이상 단체는 꼭 사전 전화접수를 해주십시오  
 문의: 070-8672-0327 새남터성지 안내소

1) **영화 '탄생' 상영 영화 감독과의 토크쇼**  
 때: 9월14일 12시30분~17시  
 2) **성곡 '성 김대건 신부님의 모친 고 우르슬라 전'**  
 9월16일(순교일) 미사와 행사(오후1시30분~5시)  
 미사: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중 주교와 사제단  
 순교자 현양 칸타타(Prima Ars 합창단)

**청소년 개인·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개인상담,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시립청소년드림센터(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개인상담 회당 5천원, 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반 비대면 강의 9월7일부터 매주(목) 10시~11시30분(14주), 그룹훈련 11시30분~13시, 화요반 비대면 저녁 강의 9월5일부터 매주(화) 19시30분~21시30분(14주)
	전문 심리상담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8월29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사회복지사, 간호사 / 인원: 분야별 각 1명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 파트타임 지원도 가능

**노비파스음악중고등학교 행정실장 모집**  
 분야: 행정실장 1명 / 문의: 02)6348-1008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신자(행정실장) 우경형자 우대 / 서류: 응시원서(본교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경력증명서, 최종 졸업증명서

**세종로성당 사무장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 문의: 02)733-147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이메일(phj3078@seoul.catholic.kr) 접수

**삼각지성당(하늘모임) 사무원 모집**  
 분야: 요원 및 성당 사무업무 / 문의: 02)795-2821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운전면허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우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 다길 17-5 삼각지성당) 및 이메일(ginosco@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단(성복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1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9월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	수시	수도원(수유동)	02)902-1489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8월27일(일) 9시	본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9월3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희망을 향한 순례의 여정 9월愛 동행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손희송 주교)는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희망을 향한 순례의 여정, 9월愛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9월愛 동행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례지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회개에 필요한 힘을 되찾는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순교 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의 순례에 교우 여러분의 동행을 청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 2023년 순교자 성월 주요 행사

### ◆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 ◆

일시 | 9월 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① 명동대성당  
손희송 베네딕토 총대리 주교님  
② 가회동성당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  
③ 중림동약현성당  
구요비 읍 주교님

※ 천주교 서울 순례길 1, 2, 3코스 시작 지점 성당에서 주교님 집전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 장소 이외에 서울대교구 다른 성지에서도 미사가 봉헌됩니다.

### ◆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 ◆

일시 | 9월 24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손희송 베네딕토 총대리 주교님 집전)

### ◆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

기간 | 8월 15일(화)~9월 24일(주일)

#### → 참여 방법

- ① 순례자 여권 세트를 구입처에서 기부하고 수령하기(1세트당 8천원 이상 기부)

※ 구입처(12곳): 가회동성당, 광화문 순교자 현양관, 교구역사관(명동), 국군중앙성당(애고개성지), 당고개 순교성지, 삼성산성당, 새남터 순교성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절두산 순교성지, 종로성당, 중림동약현성당,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단, 온라인은 1만원 이상 기부시 수령\_택배비 포함)

- ②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24곳의 스탬프 날인

- ③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9월 24일)에서 완주한 여권 제출 후 축복장 수령

※ 순례자 여권 세트 구입비는 전액 이웃사랑실천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 청소년·청년 순례길로! ◆

기간 | 8월 15일(화)~9월 24일(주일)

- 대상 |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관심있는 만 16세~38세 청소년·청년 누구나

#### → 참여 방법

'서울 순례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이벤트 참여

### ◆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순례 ◆

신청 | 8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회비 | 1인 7천원

코스 | 총 6회 (일자별 신청)

- ① 1코스 말씀의 길: 8월 29일(화), 9월 2일(토)  
② 2코스 생명의 길: 9월 5일(화), 9월 9일(토)  
③ 3코스 일치의 길: 9월 12일(화), 9월 16일(토)

자세한 행사 내용은

순교자현양위원회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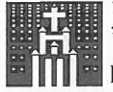
플러스친구

순교자현양위원회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2)2269-0413(www.martyrs.or.kr)

제2294(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세례식 : 9월 3일(주일) 11시 교중미사

24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절연습 : 9월 2일(토) 오후 6시 미사 후

※ 예절연습에 대부분님과 함께 참석 바랍니다.

###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8월 22일(화) 10시 미사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 대건회 60대 월례모임

일시 : 8월 24일(목) 오후 7시 / 201호

문의 : 박병근 세례자요한 (010-8293-8666)

정원근 다니엘 (010-5227-9379)

※ 대건회 월례모임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7월~8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오종우	에드몬드	2-3	이홍성	벨라벳다	4-3
홍진표	야고보	5-3	서재희	아네스	6-4
이니미	아벨라이드	7-1	이주연	프란치스카	10-4

###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8월 27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 성모신심미사 : 9월 2일(토) 10시 미사

### ◎ 유아세례 : 9월 3일(주일) 오후 4시 30분

### ◎ 청년 여름캠프

일시 : 8월 25일(금)~27일(주일), 금요일 저녁 출발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청년 누구나 / QR코드 신청

회비 : 70,000원 / 학부생 50,000원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8일(화) ~ 11월 16일(목)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 가을학기 토요일문화학교 수강신청(주일학교)

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영어, 캘리그라피  
개강 : 9월 2일(토) / 매주 토요일 수업

대상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수강신청 : 8월 15일(화) ~

접수및문의 : 카카오톡

「연희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 ◎ 비대면 청년기도모임 <프레희(喜)>

대상 : 연희동 청년 누구나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온라인-청년연합회 인스타그램 (@youth.yh)



내용 : 8월 -<프레희 기도함>내 청년들의

청원기도 및 목주기도(영광의 신비)

※ 청년 미사 전/후 성전 입구에 <프레희 기도함>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지향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 성령기도회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장소 : 205호

문의 : 루시아 회장 (010-9092-1708)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8. 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9	799 (38.6%)	763 (36.9%)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37-04-110875

### ◎ 감사헌금 (8월 7일~13일)

곽선모 ..... 오천원      익명 ..... 오만원

이대행 ..... 일십만원      문지원 ..... 오만원

정예자 ..... 삼십만원

###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9주일)

교 무 금 ..... 8,105,000원

주일헌금 ..... 6,137,000원

성모승천대축일헌금 ..... 3,777,600원

입당	480	봉헌	218, 213, 221	성체	174, 155, 183	파견	4
----	-----	----	---------------	----	---------------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 하게 하소서